

서봉동 주민들-호남대 진입로 갈등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 후문 쪽 상강골 마을 주 진입로 가운데 포장되지 않은 40여m 구간.

호남대 광산 캠퍼스 조성 때 대체도로 개설 40여 m구간 25년째 비포장 ... 주민 큰 불편

광주 광산구 서봉동 상강골 주민들이 마을을 출입하는 주진입로를 놓고 호남대학교측과 25년째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호남대학교가 광산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 주 진입로를 폐쇄한 뒤 대체 도로를 개설했으나 일부 구간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아 수십년째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10일 광산구 상강골 주민들에 따르면 호남대는 1997년 호남대측이 광산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지적도상 서봉동 551-4번지 마을 진입로를 폐쇄하고 서봉동 9번지 등 5필지의 학교부지에 대체도로를 개설했다. 호남대측이 당시 주민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상강골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1997년 6월 착공해 다음 해 8월까지 폭 6m, 길이 333m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도로는 선운지구 사거리에서 영광방향으로 500여m 진입해 호남대 옹벽을 사이로 우회전 하면 만날 수 있는데, 전체 333m 구간 중 40여 m구간이 아직까지 비포장 상태다. 비만 오면 흙탕물 길로 변하고, 초입부터 경사각도 심해 겨울이면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면이 얼어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상강골 마을은 현재 15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호남대학교 후문(쪽문)을 통해 왕래하는 학생을 상대로 원룸과 마트, 식당 운영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대측이 그동안 대체도로 문제를 제기하면 후문을 폐쇄하겠다 식으로 민원을 무마해 왔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결국 광산구까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사유재산인 탓에 직접 관리가 애매한 상황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등을 통해 조성된 대체도로는 완공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으나, 해당 도로는 아직까지 학교 소유로 남아 있다.

해당 도로 민원해결에 나선 광산구의회 박현석 부의장은 "도시계획시설인 가를 받아 개설된 대체도로를 광산구가 아직까지 기부채납 받지 않은 채 호남대 소유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40여m 가량 비포장된 구간은 모 문중 소유 토지와 호남대학교 소유 토지가 겹친다. 양측이 조속히 토지 사용을 승낙하고, 광산구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남대학교 측은 "25년 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퇴직 등으로 학교에 남아 있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최근 광산구 측에 대체도로 바로 옆에 택지개발 중인 업체가 학교부지인 대체도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9개국 15명으로 구성된 제4기 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들.

광산구 외국인 명예통장들 코로나 시대 활약

9개국 15명 활동 ... 외국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선제검사 독려

광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의 활동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제도는 광산구에 거주하는 노동자, 이주여성 등 외국인 주민을 돕기 위한 제도로 현재 제5기 명예통장들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 고령인,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 2만3000여명이 살고 있는 광산구는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로, 외국인 주민들은 서툰 한국어 때문에 가족관계등록과 변경 신고 또는 고용, 임금 등과 관련된 행정민원, 체류지 변경 신고 등 관공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2013년 7개국 10명의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임명을 시작으로, 현재는 9개국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민원과 관련한 통역 콜 서비스, 통·번역 활동 등 2000건을 지원했다.

이들의 활약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빛을 내

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9개국 언어로 개인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지침 등을 SNS로 전파하며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힘을 보탰다. 또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이후 매칭 공무원을 도와 입국 외국인의 격리, 검역, 진료 안내를 비롯한 일일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다국어 통역단'으로 맹활약 중이다.

이 같은 성과로 광산구 다국어 통역단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주민지원 우수 시책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삼호 광산 구청장은 "코로나 시대 공동체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명예통장단 운영은 외국인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행복한 다문화공동체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광산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제10기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19일까지 이메일·우편 접수...50명 이내 선정

광주시는 "부패적결에 대한 사명감과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시민 생활의 불편·불만사항과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을 제보하는 한편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고 감사에도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모집인원은 50명 이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광주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가능하다.

선정은 자치구별, 성별, 분야별로 안배하고, 교통, 문화, 환경, 건설·보건·복지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민과 감사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을 우대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시민감사관으로 2회 연속 위촉된 자 ▲개인의 이해관계 등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진정·고발하는 시민 등은 배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9일까지 광주시 감사위원회로 우편이나 이메일(jrkim8701@korea.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0세 이상 '생활 밀접 사업자' 급증

소매·음식·숙박업 등 광주 33.6%·전남 29.8%

코로나19 사태 속에 광주·전남 60세 이상 '생활 밀접 사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전남연구원이 제작한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사업자 중 광주의 생활 밀접 100대 업종 사업자는 33.6%, 전남은 29.8%로 전국 평균(29.4%)보다 높았다. 생활 밀접 100대 업종에는 소매, 음식, 숙박 등이 해당한다. 인구 1000명당 생활 밀접 사업자는 광주 50.9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았으며 전남은 48.2명으로 14위였다.

60세 이상 사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광주는 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4.5% 증가해 39세 이하(4.6%), 41~59세(4.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도 60세 이상 사업자 수가 8만6천명으로 14.7% 늘어나 39세 이하(2.6%), 41~59세(3.1%) 사업자의 증가율과 뚜렷하게 대비됐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책임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교습학원, 호프집 등 사업자 비중이 작아졌지만 한식 전문점, 통신판매업체 사업자 수가 많이 증가해 전체적으로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국회의원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개최

이용빈·민형배 의원 화상 참석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일 이용빈(광산갑),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과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은 화상으로, 광주시·광산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을지역위원회 당직자,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공무원 10여명은 구청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이원 중계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기된 현안은 도시인프라 등 16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참석자들은 의료·문화·체육시설 확충,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과 같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의 대책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용빈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광산구와 긴밀한 협의로 10여년 간 답보상태였던 광주송정

역사 증축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광산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발끈을 조여 매고 함께 뛰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을을 지역위원장은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는 광산구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시민 삶에 이로운 결과를 만드는 좋은 협력창구"라면서 "최근 이슈가 된 산정지구 택지개발 또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과거 지구단위 개발의 한계와 불편을 없애는데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국회의원의 뒷받침이 있었다"며 "광산구민의 행복을 위해 중앙정치와 지역행정의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